임대아파트 갑작스런 분양 전환…세입자들 날벼락

광주 임대사업자 "10여일 뒤 계약" 안내문 발송
수백세대 수천만원 마련 못하면 집 나가야 할 판
"서민 울리는 횡포" 반발…구청에 대책 마련 촉구

광주 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갑작스런 분양 전환 요구로 시름에 잠겨 있다.

불과 10여일의 기한 안에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으려면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집을 비우라는 '통첩'을 받은 입주민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시중 은행이 아닌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어 자치단체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광주시 북구와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자 B주택 등은 지난 6일부터 11일 사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매입임대사업자는 이 아파트 4개 단지 2368세대 중 약 1500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세대는 668세대 가량 될 것으로 북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환 안내문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전용면적 기준 48.45㎡(공급면적 66.12㎡)의 분양가를 최소 8350만 원에서 최대 9380만 원에 분양 전환한다고 공고하고 19일까지의 분양 전환기간을 명시했다.

이 아파트 세대당 전세금이 평균 6500~78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550만 원, 많게는 2880만 원의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평균 10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아 지급한 뒤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면 추가 대출금 마련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해당 사업자가 대출 알선 사업자로 안내한 기관이 비금융권인데다, 조건도 까다로와 급작스런 분양 전환 요구에 당혹해하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시 분양 전환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다. 분양가도 높은데, 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윤(55)씨는 "지난 6일 분양 전환한다는 얘길 듣고 안내도 없이 하느냐고 항의했는데, 그제서야(지난 11일) 분양 전환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다"며 "이게 임대사업자의 횡포 아니고 뭐느냐"라고 따졌다.

북구는 임대사업자 측의 분양 전환 안내 등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도 분양가 문제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구는 A아파트 세입자 중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도 있는 만큼 자칫 세입자 간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눈치다.

B주택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인데, 임대사업자 마음 아니겠느냐.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설명한 뒤, 분양전환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23일 파업 예고

노조 투표 92.6% 가결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파업 찬반 투표결과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 13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 1063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92.6%(986명)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20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23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달 15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후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기존 9.8% 임금 인상을 양보해 월 22일 근무 기준 15만6000원(5.29%) 인상 안을 수정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다 노동위원회 조정 안인 4만6천669원(1.58%)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 등 타 지역은 올해 11만~11만4000원 가량 임금인상 하기로 합의한 것에 비하면 광주는 그 인상액이 너무 낮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 돌입을 가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버스 운전기사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큰 문제"라며 "파업 돌입을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까지도 사측에 협상 창구를 열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철수 대표 광주행사 때 폭력 입건 25명 보강 수사

경찰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폭력 사건과 관련, 보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안철수 대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모(43)씨 등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17일 열린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방송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계란을 던지거나 차량을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린 50여 명 가운데 25명을 붙잡아 입건했었다.

경찰은 이들 중 최소 10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인 사실도 확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더위 감염병 주의하세요"

광주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18일 오전 방림동 푸른길 공원에서 더운날씨에 걸릴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5t 과적한 1t 트럭, 부실 고박 상태 운행하다 전복…고흥서 2명 사망

또 풀린 안전의식…화물차 점검 강화 시급하다

과적에 부실한 고박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과적·부실 고박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물차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새벽 5시49분께 고흥군 풍양면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녹동 방면으로 가던 1t 트럭이 전도, 운전자 문모(49)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50)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트럭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정모(41)씨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씨 일행이 타고 가던 1t트럭 적재함에는 도로교통법상 적재 중량(1.1t)을 초과한 건축 자재가 실려 있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은 규정을 넘어선 샌드위치 패널 10여장, 20kg들이 시멘트 40포대, 쇠파이프 등 총 1.5t 가량의 건축자재 뿐 아니라, 부실한 고박 상태도 확인했다. 아예 건축자재들을 고정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운전자 문씨가 화물을 과적한 채 녹동 방면으로 가다 졸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화물 과적 및 부실 고박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다.

앞서, 법원도 지나치게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최근 화물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35분께 나주시 삼영동 영산대교 교차로에서 나주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차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며 넘어져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덮쳐 해당 운전자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해당 차량은 구조변경으로 5t 차량에 1700kg밖에 싣지 못하게 됐는데도 2800kg이나 초과해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교통수단에 과적을 한 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인명의 대량 살상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손님이 놓고 간 돈봉투 슬쩍했다가…

쌍나팔

○…마트 계산대에 손님이 놓고 간 현금 80만원을 슬쩍(?) 한 60대 할머니가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7) 할머니는 지난 4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형유통할인매장에서 신모(58)씨의 현금 8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 할머니는 신씨가 현금을 놓고 간 것을 보고 자신의 손가방으로 돈 봉투를 가린 뒤 몰래 가져 갔는데, 경찰에서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났다. (훔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해왔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